

가고시마시 소식



가고시마 마라톤 2019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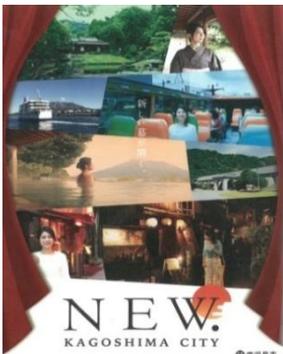
2019년 3월31일(일) 가고시마시에서 '가고시마 마라톤 2019'이 개최됐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가고시마 마라톤 대회는 42.195km 마라톤과 8.9km 편런(Fun Run)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톤은 제한시간이 7시간이며, 편런은 1시간 45분이다.

또한 마라톤은 대회당일 만 18세이상 이 대상이며, 편런은 중학생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당일 일기예보로는 하루종일 비가 올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흐린 상태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마라토너들이 달리기엔 좋은 날씨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마라톤에는 전체 1만 2500명이 참가하였으며(풀마라톤: 9,889명) 그중 완주한 마라토너수는 9,356명으로 집계되었다. 마라톤 코스는 돌핀포트에서 출발하여 시노면전차가 달리는 길을 따라 시가지를 거쳐 해안선을 따라 센간엔을 지나 사쿠라지마와 긴코완이 펼쳐지는 코스로 시가지는 물론, 자연과 바다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로서 지정되어 있다. 가고시마시를 벗어나 아이라시(始良市) 시게토미(重富)에서 반환하여 다시 가고시마 시청앞에서 끝나는 코스이다.

편런 코스는 돌핀포트 앞에서 출발하여 가고시마시 가모이케의 현청쪽으로 달려 시가지를 달리는 코스이며, 마지막에는 가고시마시청 근처인 야마카타야 백화점앞에서 끝난다. 대회당일 가고시마시 호잔홀 근처의 중앙공원에서는 마라톤 참가자 및 응원객들을 위해 '오모테나시 회장' 이 설치되어, 가고시마의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부스 및 가고시마 마라톤 홍보 부스를 구경할 수 있어 한껏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관련 정보 : <http://www.kagoshima-marathon.jp/>

가고시마시 새 관광 포스터 발표



2019년도를 맞이하여 가고시마시의 새로운 관광포스터가 발표되었다. 가고시마시의 관광포스터는 지금까지 가고시마의 매력인 메이지 유신을 주제로 한 '역사', 사쿠라지마 화산을 표현한 '자연' 흑돼지, 사쓰마아게와 같은 '먹거리'의 3가지를 표현한 포스터를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일본 국내만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가고시마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관광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가고시마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하였다. 올해는 'NEW KAGOSHIMA CITY 新しい幕が開く。(새로운 막이 열린다)'를 컨셉으로 관광포스터를 제작. 메인포스터와 함께 '역사' '경관' '힐링' '식문화'의 4가지 테마로 만들어 가

가고시마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였다. 새로운 포스터는 2020년까지 2년간 사용된다.

가고시마의 바람과 빛과 나폴리축제 개최



오는 5월 3일에서 4일까지 이틀에 걸쳐 가고시마의 바람과 빛과 나폴리 축제(かごしまの風と光とナポリ祭) 개최된다. 장소는 가고시마추오(중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사쿠라지마가 보이는 나폴리도리에서 개최된다. 올해부터는 아뮤플라자 광장도 개최장소로 결정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가고시마의 바람과 빛과 나폴리 축제 나폴리만과 베투비오화산으로 유명한 나폴리시와 긴코만과 사쿠라지마가 있는 가고시마시는 시가지의 풍경이 남아있는 점에서 1960년 5월 3일 자매 도시 맹약을 맺었다. 같은 해에 지금의 '나폴리 도리'의 명칭이 붙여졌다. 축제날이 되면 가고시마추오(중앙)역 일대는 나폴리의 피자과 와인을 비롯한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고 이탈리아의 음악으로 가득찬 공간으로 대변신한다.

-관련 정보: <http://napolisai.com/>

소방국 외국인 대응훈련



3월13일 가고시마시 소방국에서 외국인 대응훈련이 있었다. 이날은 소방국 관계자 시청 직원들 약 50명정도가 함께 참가하였다. 목적으로는 소방 구급대원들이 긴급상황시 현장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응의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 한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가 사고나 병이 났을 상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국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를 가정하여 소방국은 후쿠오카의 다국어 대응센터에 전화를 하여 실시간 통역으로 훈련을 하였다.

구급대원의 능숙한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으로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의 8년째이며 최근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지진, 북해도 지진과 같은 많은 재해가 일어났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외국인 및 방일 관광객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사고나 병과 같은 긴급상황외에도 지진과 같은 큰 재해시에 대비하여 평소부터의 이러한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재해시의 외국인 대응 세미나



지난 3월 15일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에서 재해시 외국인 대응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현 다이버시티연구소대표이며 총무성 '지역의 다문화 공생 추진연구소'의 구성원으로 활약중인 타무라 타로씨다. 우선 직원과 구



급대원, 외국인이 한팀이 되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외국인을 대응하는 훈련을 해 보았다. 훈련이 끝난 다음, 타무라씨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외국인과 일본인들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점과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들을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의 한계점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재해시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및 과제로 일본어와 일본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메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강사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거주 외국인 및 방일 관광객들에 대한 다언어대응 방법과 다문화 공생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주장하였다. 강사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과 주장들이 세미나에 참가했던 가고시마시 구급대원과 시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 생각된다.

한국과의 교류

SK와이번스 전지훈련 방문



가고시마는 기후가 온화하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식자재가 풍부해서 매년 프로팀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다. 올 봄에도 한국 프로야구팀 SK와이번스가 2월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지훈련을 위해 약 40명의 선수들이 가고시마시를 방문했다. SK와이번스는 작년 2018년 한국리그 우승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에 가고시마를 찾은 SK와이번스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2월 16일 현립 가모이케 야구장에서는 전지훈련 격려식이 열렸다. 이 날은 가고시마시 모리시장을 대신해 가고시마시 관광교류부장님이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가고시마시와 가고시마현에서 흑돼지, 사쿠라지마 무, 녹차 등의 가고시마의 유명 특산물을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SK와이번스 이종운 감독은 전지훈련지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가고시마에서 훈련을 하게 되어 기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인사말씀을 전했다.

시민들과의 교류

중국어 오사베리카이(담소회)



지난 3월10일 일요일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의 주체로 중국어 오사베리카이 이벤트가 열렸다. 이날은 시 중국출신 국제교류원과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거나 말할 줄 아는 사람들로 국적 관계 없이 참가했다. 이 날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물론 간단한 질문들로 이루어진 시트를 이용한 빙고게임을 하거나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교류를 즐겼다.

보호자와 아이와 함께 즐기는 국제교류이벤트



지난 3월 21일 가고시마시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참가하는 국제교류 이벤트가 열렸다. 참가인수는 10가족으로 총 25명. 이날은 미국출신 외국 어지도교수와 한국출신 국제교류원이 각자의 언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외국문화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읽은 동화책은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져있는 배고픈 애벌레(はらぺこあおむし). 영어동화책 시간에는 외국어 지도교수의 출신지 소개 및 영어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한국어 동화책 읽기 시간에서는 동화책에 나오는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 다음 읽는 시간을 가졌다. 다 읽고 나서는 한국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노래를 들으며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광관련소식

가고시마-서울간 하늘편소식



한국 저가항공회사(LCC) 티웨이항공이 가고시마-서울간의 정기노선을 올해 4월1일부터 월, 수, 금 주 3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국의 서울과 가고시마를 잇는 하늘길은 대항항공, LCC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4개의 회사에서 운행한다. 겨울철이 되면 가고시마는 골프와 온천 등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와 같이, 증편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맞춰 최근, 가고시마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시내의 간판이나 안내문에 정확한 한국어 표기를 추가 및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티웨이 항공은 가고시마 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기타큐슈, 구마모토, 오이타를 비롯한 규슈지역의 주요 도시들과도 이어져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규슈지방의 방일 관광객의 수가 최초로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규슈운유국) 그 중 가고시마시의 외국인 숙박관광객의 수가 약 35만명으로 과거최고로 기록했다.(2017년도) 한국뿐만이 아닌 크루즈선을 통해 가고시마를 방문하는 아시아지역으로의 관광객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현재 일본은 방일관광객의 수가 3천만명을 돌파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지역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방일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도쿄, 교토, 오사카와 같은 주요 3대도시를 방문한 뒤, 일본의 다른 매력을 찾아 지방 소도시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의사에 맞춰, 일본 지방도시들의 공항에서는 국제선의 비율을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근 몇년간 지역내 방일 숙박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